THE ENGINE OF KOREA
HANYANG UNIVERSITY

2020 한양대학교 ERICA 논술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ERICA 입학처 입학팀 2020.03.31

[국문논술 오후 문제1]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1]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평화주의자의 딜레마' 는 폭력의 역학 변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모든 개인과 연합체는 공격에서 승리하여 이득을 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협동자를 배신하는 행동), 똑같은 유혹에 따라 행동하는 상대에게 패배하여 손실을 치르는 일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둘 다 공격을 택한다면, 그들은 괴로운 전쟁에 빠져들어(상호 배신) 둘 다 평화를 택했을 때보다(상호 협동) 더 나쁜 상태에 도달한다. 〈표 1〉의 손익 표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비록 이 손익 표에서 이득과 손실에 주어진 값은 임의적이지만, 딜레마의 비극적 구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세상이 〈표 1〉과 같은 손익 구조일 때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평화주의자라면, 나는 공격자로서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고픈 유혹을 느낀다. 승리의 10의 이득이 평화의 5의 이득보다 낫기 때문이다. 상대가 공격자라면, 나는 평화주의자로서 상대에게 착취당하는 희생자가 되느니 공격자로서 전쟁의 괴로움을 견디는 편이 낫다. 착취당하는 희생자가 되면 처참한 100의 손실을, 전쟁을 택한다면 50의 손실을 겪는다. 결국, 어느 쪽이든 공격이 합리적 선택이다.

〈표 1〉 평화주의자의 딜레마

		상대의 선택	
		평화주의자	공격자
나의 선택	평화주의자	(5, 5)	(−100, 10)
	공격자	(10, −100)	(−50, −50)

*괄호 안의 첫 번째 값은 나의 손익, 두 번째 값은 상대의 손익을 의미

〈나〉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은 오로지 그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만이 통치되며, 자신의 생명을 적들로부터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것 혹은 이용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연권(right of nature)에 의해 모든 인간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심지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 이와 같은 자연의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가 존속하는 한, 자연이 보통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한 시간을 다 살 수 있는 안전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보장되지는 않는다.

상호신뢰에 의한 계약은 어느 쪽이든 한 쪽에 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곳에선 무효이다. 따라서 정의의 원천이 계약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려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실제상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인간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선 그 전에 어떤 강제력이 존재하여 인간들이 계약의 파기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좀 더 큰 처벌의 공포에 의해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계약을 이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부족 사회가 최초의 국가들의 통제를 받게 되자, 습격과 복수가 억제되어 폭력적 사망률이 5분의 1로 줄었다. 유럽의 봉토들이 왕국과 주권 국가로 융합되어 법 제도가 통합되자, 살인율은 또다시 30분의 1로 줄었다. 반면에 정부의 손길을 벗어난 무정부 상태의 고립 지역은 폭력적인 문화를 유지했다. 유럽 주변부와 내륙 산악 지대가 그랬고, 미국 남부와 서부 변경 지역이 그랬다. 사회 경제적 풍경에서의 무정부적 고립 지대도 마찬가지였다. 하층 계급은 일관된 법 집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밀수업자들 역시 법 집행에 의지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탈식민화, 실패한 국가, 혼탁한 정치, 경찰 파업 등 법 집행이 후퇴한 때는 폭력이 도로 아우성쳤다. 무능한 정부는 가장 중요한 내전 위험 요소로 밝혀졌다. 폭력으로 황폐해진 개발도상국들과 그보다 평화로운 선진국들을 가르는 주된 요인이 그 점일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표 1〉의 손익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500자, 40점)

1.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제시문 간의 맥락을 통합적 시선에서 파악하여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종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추론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인류 역사에서 인간 폭력의 감소에 있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국가의 역할을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추론한다.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 [나]는 인간이 개인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는 자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주권자에게 복종할 것을 승인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통제 혹은 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역시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의 형성과 통제가 어떻게 폭력을 감소시켜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문 [가]의 평화주의자의 딜레마에 적용해보자. 만일 국가가 폭력의 역학 관계에서 공격자에게 평화 대신 공격을 택했을 때의 이득보다 세 배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면, 잠재적 공격자가 택할 두 선택지의 매력이 달라져 전쟁보다 평화의 호소력이 더 커진다. 이 경우를 〈표 1〉로 예를 들면, 잠재적 공격자가 공격을 택했을 때의 이득은 10-15로 -5가 되며, 나와 상대방 모두 공격을 선택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양측 모두의 이득은 -50-150으로 -200이 된다. 결국 잠재적 공격자는 평화를 유지하는 선택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문논술 오후 문제2]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2]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민주정치는 시민 스스로 다스리는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시민의 사회 참여는 민주 정치 그 자체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은 소수의 손에 들어가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오늘날 대의제 하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자신들의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오늘날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행정기관에 청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언론기관에 투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정당을 후원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집회나 서명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여론으로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서는 전자투표, 온라인 서명, 사이버 캠페인 등 정보매체를 이용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사회 참여가 가능해졌다.

〈나〉

더러는 연대의식으로 정부의 조치나 국민을 비판하기도 한다. 애국심은 정부정책에 반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벌였던 두 가지 근거를 예로 들어보자. 하나는 전쟁은 부당하다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전쟁이라는 믿음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의 시민들만이 느끼고 외칠 수 있다.

(중략)

가족이나 동료 시민의 행동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끼는 감수성은 집단적 책임감을 느끼는 감수성과 연관된다.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아로 인식하게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우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서사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중략)

마이클 센델(Michael J. Sandel)은 "개인이 단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만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렵다. 다른 곳에 사는 누구라도 독립선언서, 헌법,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 등을 존경하거나 감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라온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끄집어내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존 롤스(John Rawls)는 시민 불복종 개념을 "완전히 정의롭지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인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롤스는 정의에 위배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는데,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공적 행위가 곧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다. 불법적 행동에 대해 합법적 대응 수단을 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합법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불법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다수의 침묵하고 무관심한 동료 시민들을 일깨우고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정당한 신념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불복종은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자유만 허용된다면, 이는 인간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율의 실천으로서 자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에리히 프롬(Erich S. Fromm)은 "인류의 파멸은 증오와 탐욕, 파괴적 행동에 대해 개개인들이 복종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불복종한 의지의 행사를 통해 그나마 파멸을 막고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라〉

제2차 세계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외쳤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독일에 해가 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꼬박꼬박 세금 을 냈고, 법을 지켰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 까?"

그의 외침에 기차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들 그 젊은이의 분노와 절망에 동감하는 듯하였다. 그때 한 노인이 말하였다.

"ⓑ바로 그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세. 젊은이, 히틀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지."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밑줄 친 ⓑ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밑줄 친 ⓐ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800자, 60점)

1.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제시문의 정보와 의도를 정확하게 리터러시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 간의 성격과 관계를 주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문제에서는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 및 집단적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의 본래적 개념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특정 주장에 대한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2. 문항 해설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가〉와 제시문〈나〉의 관점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의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근거로 제시문〈라〉의 ⓑ의 의미를 상세하고 기술 할 수 있는지 ⓐ를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다〉에서 제시한 '시민 불복종' 개념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에 위배되는 법률, 정책, 명령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제시문〈가〉는 민주 정치의 핵심요소로 사회 참여를 제시한다. 사회 참여는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일체의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 불복종' 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다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국가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고 목적지향적인 항거이다.

제시문〈나〉에서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 불복종' 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사회 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분명한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전제로 한 문제 제기며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것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감이 전제될 때, 시민 불복종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고,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는 의미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요구에 무관심했거나 적극적인 형태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의 '아무런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과 대구를 이루며 그 인식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에서 젊은이가 말하는 의무는 시민 사회의 최소 의무일 뿐이다. 젊은이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부당한 권력의 정의롭지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어야만 했다. 따라서 ⓐ의 젊은이 주장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 집단적인 책임감이 없으며, 사회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